

NEWS LETTER

2022년 01월 03일 Vol. 429

이비인후과 박석원, 김진엽 교수, 연구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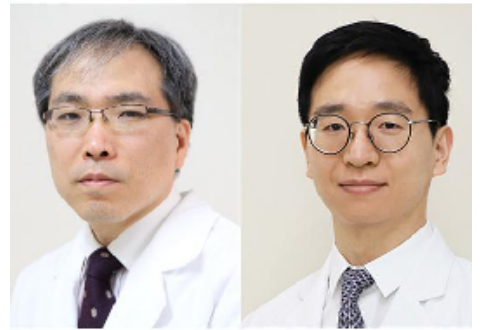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석원, 김진엽 교수가 최근 알레르기 비염 면역치료에 대한 네트워크 메타분석 연구결과를 미국 알레르기 면역학회지(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in practice [IF:8.9])에 발표했다.

면역치료는 알레르기 비염 치료의 근본적인 면역학적 반응을 바꿀 수 있는 치료로 알려져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 비염에서 피하면역치료가 설하면역치료보다 조금 더 높은 효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박석원 교수는 “꽃가루 알레르기에 비해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 면역치료는 많은 환자를 포함한 비교연구 수가 적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면역치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진엽 교수는 “면역치료의 효능을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통해 분석한 연구다. 하지만 추후 직접적인 분석 연구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문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미국 알레르기 학회에 ‘임상진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practice changer)’로 선정됐다.



정전대비 도상훈련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2월 29일 병원 4층 중강당에서 정전 발생 시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토론 기반의 도상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권범선 병원장, 최기석 행정처장, 박현수 진료부원장을 비롯한 보직자 등 원내 주요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상훈련은 실제 훈련이 아닌 도구나 부호를 이용한 가상훈련으로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날 훈련은 병원 정전 발생에 따른 재난지휘본부 설치와 부서별 행동 절차 수행에 대해 실제 훈련이 아닌 시나리오 상황에 따라 대응부서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현수 재난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 및 역할 숙지로 대응능력 향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와 환자안전과 교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 동지 맞아 팔죽 400인분 전달

대한불교조계종 서울 강북구 소재 도선사에서 지난 12월 27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을 방문해 동지 팔죽 400인분을 전달했다.

매년 12월 22일은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이다. 동지는 음(陰)의 기운이 강한 날이지만, 다음날은 다시 양의 기운이 세지는 날이다. 그래서 동지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로 여겨져 왔으며 팔죽은 액운을 없애는 의미가 담겨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동지를 맞아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 따뜻한 팔죽 공양을 전달했다”며 “붉은 팔의 기운으로 코로나 등 질병에서 벗어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불자모임 금선회, 취약계층 치료비 800만 원 전달

서울 노인무료급식소 봉사단체 불자모임인 금선회에서는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16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해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로 써달라며 800만 원을 전달했다.

‘금선회’는 취약계층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노숙인을 위해 무료로 따뜻한 식사를 만들어 제공하는 봉사단체다.

금선회 회장은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은 일을 하고 싶어 방법을 고민했다”며 “봉사자들이 조금씩 기부금을 모았다. 작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사회사업후원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에 쓰일 예정이다.

사회사업실에서는 교직원의 급여나눔 및 지역사회 기부자들의 기부동참을 통해 사회사업후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후원금은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치료비로 사용되고 있다.

